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함평만에 ‘고수온경보’ 발령 득량만 외측까지 주의보 확대

해수부, 사료공급량 조절·산소공급 신속대응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일 오후 2시부로 전남 함평만에 내린 고수온주의보를 경보로 상황 발령했다. 또 전남 득량만 내만에 내린 고수온 주의보는 외측해역까지 확대 발령했다.

전남 함평만 해역의 수온이 이날 기준으로 28.6도를 기록하는 등 고수온 경보 발령기준인 28도 이상의 높은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고, 득량만 외측 해역도 수온 28.2도로 주의보 발령기준인 28도에 도달했다.

올해 고수온 경보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2018년보다 2주 정도 빨리 발령됐다. 특히 발령 이외의 해역도 수온이 24.9~26.1도로 평년에 비해 1~2도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9일 장관 주재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수온·적조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대응장비 점검 및 어업인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입식신고 및 재해 보험 가입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고수온 관심단계부터 함평만 연안을 비롯한 고수온특보 발령해역을 모니터링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 대응반을 배치해 먹이 조절과 대응장비 가동, 면역증강제 투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식어가 지도를 지속하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고수온 특보가 발령된 해역에 있는 양식장은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산소공급기 및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를 가동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어업인께서는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철저히 고수온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수습·경력기자 모집

“지역언론의 선봉장인 호남신문에서 재능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모집부문·인원 : 수습·경력기자 0명
- ▶ 지원기간 : 채용시까지
- ▶ 지원자격 : 학력·나이제한 없음
-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
-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부착)·자기소개서 각 1부
- ▶ 접수방법 : 등기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ihonam@naver.com)
- ▶ 접수처 :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어랜드 309호 (문의전화 : 062-229-6000)



‘장애산악인’ 김홍빈 실종 대책위·지원반 가동

광주시·산악연맹 등 8개 기관
 실종지점 고산지대 시간 소요
 코로나19로 구조대 파견 ‘난항’



장애 산악인 김홍빈(57) 대장이 장애인으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된 가운데 광주시와 산악연맹·장애단체육회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색지원에 나선다.

광주시와 광주시산악연맹, 대한산악연맹, 대한장애인체육회, 광주시에장애인체육회, 광주시체육회는 20일 (새광주전남등산학교, 새김홍빈과 희망만들기와 함께 사고대책위와 실무지원단을 구성했다. 대책위 사무실은 시청 12층에 마련됐다.

상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지점이 브로드피크 7900m 정상 부근이어서 국내에서 구조인력을 파견하면 고산지대 적응훈련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광주대책위는 최대한 현지원정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고수습대책위는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원주 브로드피크 원정대 단장과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실무지원단은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로 구성됐다.

대책위와 지원단은 코로나19로 구조대 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지 대원들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관리, 현지 요청사항 지원과 가족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외교부에서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협력해 대책반을 운영중이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브로드피크 정상 부근 기상이 나빠져 캠프에 남아있던 대원들도 하산하고 있다”며 “이들이 21일께 5000m 지점에 있는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면 정확한

그러면서 “김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14좌 완성에 성공한 불굴의 산악인”이라며 “생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조 활동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화요간담회에서 “너무나 황망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삶 자체가 인간 승리의 역사였던 김 대장에게 불가능은 없는 만큼 이번에도 모진 역경 이겨내고 살아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홍빈 대장은 지난 18일 오후 4시58분께(현지시간) 파키스탄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을 하던 중 7900m 지점에서 빙벽(크레바스)아래로 추락했다.

김 대장은 위생전화를 이용해 구조요청했으며, 러시아 구조팀이 발견하고 밧줄을 이용해 끌어 올렸지만 15m를 남겨두고 다시 추락한 뒤 실종됐다.

기동취재본부

주중 38도까지 오른다... “2018년 수준 폭염은 유동적”

서쪽 지역 중심 한낮기온 최대 38도
 올해 40도 육박 열돔 현상 가능성 ↓

사실상 장마가 지난 19일로 종료된 가운데 이번주, 극한의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38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상청은 “우리나라 장마는 어제(19일)까지 내린 비가 장마철에 의한 비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국지성 소나기나 폭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5일까지는 폭염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는 24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6호 태풍이 전달하는 열기에 낮 동안 햇볕에 의한 일사 효과로 우리나라 폭염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이 기간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기상청은 올해 폭염이 지속돼 이른바 ‘열돔 현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한 상태에서 인도 북부에 위치한 티베

트 고기압이 가세하며 열돔이 형성된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 2018년 당시에는 열돔 현상으로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열돔 현상은 지속성의 문제로 지난 2018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교차한 상태로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 머물렀다”며 “그러나 올해는 7월 하순으로 갈수록 고기압의 형태가 유동적으로 변해서 탄탄한 기압계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워킹레일

신세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장성읍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

요양원 061) 395-2580
 주간보호 061) 394-0123

장성읍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